## 데스크시각

# 강운태 시장의 '문화 속도전'

김미은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미스 사이공'을 초연했던 성남아트센터는 전국의 공연장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잘 나가는 문화시설이다.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성남문화재단이다.

매년 8월 열리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클래식 팬들에게는 꼭 가볼만한 페스티벌로 꼽히는 행사다. 2011년부터는 정명화·정경화씨를 새로운 감독으로 영입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주최하는 곳은 강원문화재단이다.

### '文化공룡' 출현하나

최근 광주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을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시장 인수위가 내놓은 100대 과제에 '광주문화재단' 설립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일단 인수위 안은 이렇다. 광주문진위(지역협력형 사업 등)+광주공연예술재단(국제공연예술제·정율성음악제 개최)+문화시설운영(문예회관·빛고을문화관 등)+6개 광주시립예술단 운영 등이다.

이 안대로라면 타 지역 문화재단이 '각각'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데 모아놓은 대규모 조직이 탄생한다. 재단이 시립예술단까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다. 효율성은 도외시하고 통합에만 집착한, 규모만 키운 '공룡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임 시장이 입성하면서 문화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역대 어느 시장보다 문화예술과 친근한 이미지로 각인돼 왔다. 예상대로 강 시장은 대표적인 문화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관련된 발언들을 쏟아냈다. 비엔날레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한다는 게 주 골자였다.

이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과 '안에서' 부대끼며 얻는 결론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995년 창설 후 방향 설정을 하지 못하고 뒤뚱거렸던 비엔날레가 현재 '세계 대표 현대미술축제'로 자리잡은 건 최근 몇년간 잡다한 부대행사들을 줄이고 '본전시'에 집중한 덕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는 9월3일 개막하는 8회 비엔날레는 1년 넘게 컨셉을 잡고 회의 등을 거쳐 '그림'을 완성한 터라 강 시장의 의지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 사람들이 비엔날레의 개념조차 모를 때 비엔날레를 만들었던 강 시장이라면 이런 대규모 행사가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걸 알테니 말이다.

하지만 시장의 발언은 즉각 재단에 압박으로 작용했다. 재단측은 기존에 기획했던 양동시장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문화센터 등 비전문가그룹 25개팀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프로젝트'를 개최키로 했다. 예산도, 준비할 시간도 넉넉치 않아 일단 구색 맞추는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조정한 것이다.

최근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은 서울과 인천 시립극단에 다녀왔다. 인수위 측에서 제안한 광주시립극단 창단과 관련한 자료 수집 차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극단 창단일까. 오히려 광주시향 등 6개 예술단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선 아닐까.

문화재단이나 시립극단 등 인수위 안(案)은 안(案)일 뿐이다. 강 시장의 발언 역시 맹목적으로 추종할 필요는 없다. 난상토론을 거쳐 주어진 문제에 '제대로 된 답안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 난상토론 꼭 거쳐야

강력한 문화마인드를 장착한 CEO의 등장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강 시장이나 인수위원, 자문위원의 '지나친' 아이디어 발산과 가이드 라인 제시는 문화정책 입안자와 현장 예술인들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이 강 시장의 '입'만 바라보고, 인수위 등이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종속된다면 지역문화계에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 특히 앞뒤 맥락없는 추종은 정책 입안자나 예술인들 스스로 족쇄를 차는 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문화는 가시적인 성과가 쉬 보이지 않는다. 행여 '변화된 모습을 즉각 보이라'는 속도전에 밀려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될까 걱정이다. 이게 다 지나친 기우이길, 쓸데없는 오지랖이길 바란다.

〈문화생활부장〉 mekim@kwangju.co.kr

## 사설

# 금호타이어 노사 '고소 전쟁' 파국 우려된다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노-사 및 노-노 간에 '고소 공방'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강경파 노조원들이 주도해 별도의 노조 집행부를 구성한 이후 현 노조 집행부 및 회사 측과 충돌을 빚으면서 10여건에 이르는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회사 측은 지난 14일 강경파 노조원들이 현 노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폐쇄한 노조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19일과 20일에도 노조 사무실의 전력을 차단한 데 항의하던 강경파 노조원들이 회사 간부를 위협하는 등 40여분간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맞서 강경파 노조도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폭행했다며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측은 강경파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모씨가 지난 2일부터 장기 무단결근하고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해고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4월 장기간에 걸친 노사간의 갈등으로 법정관리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가까스로 타협안을 마련해 겨우 '숨통'이 트인 상태다. 채권단의 자금 지원으로 회사와 280여 협력업체들이 사실상 '연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양측의 '고소 공방'이 가열되면 회사 정상운영은 물론 워크아웃 진행에도 차질이 불보듯한 일이다. 우리는 회사 내부의 문제까지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회사와 임직원, 지역사회 모두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 모두 즉시 취하하고 노조원과 회사가 합법적이고 상식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노조를 재구성하는 게 현재로선 대안이라고 본다. 노사가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 광주 근로자 임금 하락 폭 전국 최고라니

광주지역 근로자의 임금이 전국 평균의 80%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하락 폭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임금 근로시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근로자의 월급여 평균총액은 206만6804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230만4167원의 89.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10위)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해 3.4%포인트나 감소해 울산 다음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번 사업체 임금 근로시간 조사는 좋은 일자리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던 건설관련업마저 고사 위기에 빠진 광주 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광주는 기아차, 금호타이어, 삼성전자 광주공장 외에는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어 고용창출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도 하청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임금 수준도 비교적 높은 건설업은 최근 몇 년 동안 도산이 줄을 잇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 임금이 최악일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이다.

저임금은 우수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유치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이는 최근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전달에 비해 0.7%포인트가 낮아진 반면 실업률은 0.4%포인트 높아진 지난 6월 중 광주·전남 고용동향에서 잘 나타나 있다.

지역경제의 최대 현안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임금과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가 많아야 사람이 몰리고 또한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활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 정치인, 광주시, 상공인 등은 '일자리 창출' '생산도시'를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기업다운 기업이 스스로 광주를 찾을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만드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은펜칼럼

# 도청 별관문제와 합리적 토론문화

최영태

필자는 약 2년 전인 2008년 8월 광주일보 NGO 칼럼란에 도청 별관문제를 소재로 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5·18 관련단체들이 별관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간 지 두 달 가량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5·18 정신 및 가치를 중시한 5·18 관련단체들과 절차 및 문화전당의 성공적 추진을 강조한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주장 모두에 일장일단이 있으며, 상호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추진단을 향해 별관의 1/3 정도라도 보존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방안은 정부에 맡기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록 모두를 만족시키는 단일안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지만 두 개의 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한 원탁회의와 10인 위원회의 경험은 합리적 토론문화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비공식적인 전언에 의하면 별관문제는 절반을 약간 넘는 30m(전체 54m)를 보존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 같다. 좀 더 많이 보존하지 못하는 데 대해 아쉬움도 있고, 또 이 정도 안을 만들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는지 의심도 되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을 보존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별관을 이렇게 절반이라도 보존할 수 있게 한 일등공신은 물론 5·18 관련단체들이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제는 별관의 전면 보존 내지 게이트 안을 주장한 사람들도 30m 부분 보존 안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원탁회의의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광주에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문화전당은 문화도시 광주를 위해서는 물론이요 5·18 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서도 잘 만들어져야 한다. 광주 밖의 그리고 외국의 문화애호가들이 광주와 문화전당을 찾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5·18사적지 및 5·18항쟁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문화전당은 전당을 찾는 수많은 대중과 5·18사적지를 결합시켜 그것을 살아 있는 유적지로 만들어 줄 것이다.

5·18사적지와 문화전당의 만남은 환상적 조합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민들이 부분보존 안을 흔쾌히 수용하여 문화전당과 5·18사적지의 성공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광주에 합리적 토론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남대 교수·광주흥사단 대표〉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기고

# 적조생물도 웰빙식품 소재로 가능하다

조은섭

남해안은 비교적 큰 조석 차와 잘 발달된 리아스식 해안 특성을 보여, 수많은 도서 및 곡선형 해안선에 의한 반폐쇄적 특성을 보이는 내만 해역이 발달되어 있어서 오래전부터 어패류의 산란장 및 생육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름철은 남해안에서 서식하고 수산생물이 가장 활발하게 생장되고 있는 기간이지만, 항상 여수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코클로디니움 적조로 인하여 양식어류가 대량으로 폐사하고 있다.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은 와편모조류에 속하며, 적합한 환경조건 하에서는 단세포에서 여러 세포가 연결되어 긴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대규모로 증식되면 세포에서 점성물질의 분비로 바닷물의 점성이 높아지고 물고기의 아가미 호흡을 막아 질식사를 유발한다. 코클로디니움 적조로 인한 어류 대량폐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근 일본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한다.

최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동남아시아 및 북미에서 코클로디니움 적조가 발생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코클로디니움 적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을 대상으로 생화학적 분석에 관한 보고는 매우 미진한 편이나, 최근 지방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10% 이상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포집하면 충분히 산업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영양의 과잉섭취가 비만, 암, 당뇨병, 혈관계 계통의 질병 등과 같은 성인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원인 중 하나가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은 축육 섭취량의 증가다. 지방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열량이 많으므로 현대인들은 비만 때문에 지방의 섭취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각종 성인병의 주원이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도 있다.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산에는 2중 결합의 수에 따라 이중결합이 없는 포화지방산, 하나인 단일불포화지방산, 두 개 이상인 다가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며, 다가불포화지방산에는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으로 나눠진다. 오메가-3 지방산은 성인병 예방효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소, 돼지고기 기름에는 없는 반면에 생선기름에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DHA(docosahexaenoic acid)는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암 발생 억제, 당뇨병 및 알레르기 예방, 망막기능을 향상시키는 등의 생리적인 기능이 있으며, EPA(eicosapentaenoic acid)는 동맥경화, 뇌졸중, 혈전, 심장병 등의 순환기 계통의 성인병 예방, 항염증 및 면역작용 등의 생리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매년 남해안에 발생되는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을 대량으로 포집하여 오메가 지방산을 신속하게 추출 및 정제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통하여 적조생물의 산업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해수산연구소 해양수산연구사〉

# 축사 건축규제 완화해 축산농가 부담 덜어줘야

귀농을 해서 돼지를 키워보기 위해 농촌의 몇 곳을 알아보던 중 약간 난감한 사실을 알았다.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가 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는 누구든지 양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축산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축산분뇨의 냄새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도가 그렇게 돼있으니 새로 양돈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1㎞ 떨어진 곳으로는 도로나 전기시설도 찾기 어렵다. 만약 그걸 감수하고 축산을 하려면 나 스스로 돈을 들여 도로가 들어설 땅을 사고, 거기에 도로 공사를 해야 하며 전봇대를 세우고 전기가설공사까지 해야 하니 그 비용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축산농가들은 우수한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생산해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마다 이렇게 규제를 두면은 결국 우리나라 축산은 더욱 발붙일 곳을 잃고 말 것이다. 이제는 육고기도 완전히 수입해서 먹을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과도한 규제는 좀 완화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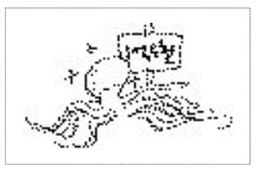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

## 無等鼓

# 점쟁이 문어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는 두 명의 예언자가 등장한다. 카산드라(Cassandra)와 라오콘(Laokoon)이다. 두 명 모두 신탁을 받드는 신관으로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트로이 왕녀 카산드라는 아폴론의 구애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예언의 능력을 갖게 되지만, 끝내 아폴론의 구애를 거부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화가 난 아폴론은 카산드라의 입 안에 침을 뱉음으로써 아무도 그녀의 예언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저주를 내린다.



이후 카산드라는 "그리스군의 목마를 트로이 성으로 들여놓으면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아무도 이 예언을 믿지 않는다. 패전 후 그리스 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의 첩이 된 카산드라는 자신과 함께 귀국하려는 아가멤논에게 마지막으로 재앙을 예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끝내 아가멤논과 함께 그의 부인에게 살해된다.

트로이 포세이돈 신전의 신관인 라오콘은 그리스 군이 해변에 남겨놓은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목마가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목마의 배를 향해 창을 던진다. 라오콘의 불경한 행동에 노한 아폴론은 두 마리의 거대한 바다뱀을 보내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을 죽인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경기 결과를 정확히 예언한 '점쟁이 문어' 파울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파울을 사겠다고 나선 곳은 러시아의 도박회사로, 외신들은 파울의 몸값으로 10만유로(약 1억5700만원)가 제시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도박회사는 독일 서부 오버하우젠 해양생물관으로부터 파울을 사들여 경기 예언사로 고용, 매달 봉급 50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울이 세계 최초의 백만장자 문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카산드라나 라오콘처럼 앞날을 예언한 대가로 비참하게 생을 마칠 것인지 주목된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회1부 2200-612 〈FA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A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